

불교, '붓다'로 가는 자기 형성의 길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3. 붓다와 보살(普薩) ㉓

인간존재와 그 수평적 관계

붓다의 가르침은 개개의 인격의 사유(思惟)와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길의 가르침이었다. 비구들은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자주 공한처(空閑處)에 가서 독좌정관(獨坐靜觀) 하면서 자기 형성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자기 형성에 있어서 출발점을 범부(凡夫)로, 도달하는 목표는 불타(佛陀), 그 도정(道程)을 그들은 출가(出家)의 비구로서 각자 걸어갔다. 이 출가라는 형식이 이미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근본불교의 개인주의적 경향(傾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에서 떨어져서 속세의 일을 버리며 가정의 관계까지도 끊으면서 다만 한결같이 자기 형성의 일에 정진한다는 생활양식이다.

일체의 다른 소망을 버리며 이러한 생활 형식에 감연히 들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희귀하였으며 또 매우 존경받는 존재였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무상(無償)의 공양(供養)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 보면 출가라는 형식은 이미 그 자체 속에 분명한 모순(矛盾)을 품고 있다. 그는 사회를 떠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사회와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을까. 그는 여전히 발우(鉢盂)를 손에 들고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로부터 음식을 얻으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한다는 것일까. 또 그들은 속세의 일을 모두 버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출가라는 행위로서 완전히 속세의 일을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공양(供養)하며 그들을 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속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그들은 전혀 무관심하여도 좋다는 것일까.

또 출가자들은 그 가정과의 관계도 끊어 버리고 여기에 도달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을 낳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을 대신해서 인류의 상속(相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것일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전혀 고립될 수 없는 것일까. 붓다의 가르침은 바에 의하면 일체 존재의 모습은 연기(緣起)의 법칙에 의하는 것이라고 한다. 연기란 조건에 의한 존재란 뜻이며 모든 존재는 관계 또는 인과(因果)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 관계 또는 인과라는 것은 도대체 개개의 인격을 중심으로 하여 세로의 선(線) 위에서만 생각하면 좋은 것일까. 앞에서 말한 한 구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며,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깨끗하다.

옛 주석자(註釋者)도 인간존재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시인과(異時因果)와 동시인과(同時因果)의 둘로 나누어서 생각한 일이 있다. 이시인과란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인과상속(因果相續)의 관계이다.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힌다”라는 그 인과이며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깨끗하다”라는 그 관계이다. 이 관계는 물론 도저히 무시할 수는 없다. 도저히



중국 맥적산 석굴 중 한 곳. 석가모니 부처님 옆으로 보살과 아난과 가섭이 서 있다. 불교는 범부가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다.

히 끊을 수도 없다. <법구경>의 한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허공(虛空)에 있어도 바다에 들어가도 산골짜기의 동굴 속에 숨어도 거기에 있으면 악업(惡業)에서 모면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는 없다.

그것을 종(縱)적인 관계라고 말한다면 동시인과(同時因果)란 그것에 대해서 수평(水平)의 관계이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다만 혼자서 이 세상에 존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웃 사람이 있으며 고향을 함께 하면서 산다. 같은 나라의 사람이 있으며 같은 나라에 함께 산다. 같은 시대가 있으며 시대를 같이 하면서 이 세상에 있다. 다시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 초목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주위의 그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현대의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풍토(風土), 사회, 환경, 문화, 그것과 분리되어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를 옛 주석자(註釋者)는 동시인과라고 말하며 또 단순히 수평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횡(橫)적인 관계를 근본불교는 경시(輕視)한 것처럼 보인다. 출가라는 생활형식은, 그 경향(傾向)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적 필연(必然)은 이러한 경향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동시에 그 안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이상의 도입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교의 역사는 자기 비판의 역사이다. 근본불교가 안에 품고 있는 이러한 모순도 얼마 후에는 자기비판의 과제가 되었다. 인간의 존재가 단순히 세로의 관계만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이 반성되었으며 비판되었다. 종적인 관계도 또한

써 보살의 이상이 여기에 등장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사회적 인간으로서 이 길을 가려는 것이다.

궁극의 목표는 여전히 붓다 이상의 실현에 있다. 그러나 그 도정(道程)은 다르다. 여태까지의 길은 개개의 인격의 확립이라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행동하면서 이 길을 가려고 한다. 거기에서는 벌써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 한다는 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이 새로운 관심을,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든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다. “만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모두 정토(淨土)에서 태어날 수 없다면 나는 단연코 정각(正覺)을 취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한 이도 있다. 이러한 표현을 앞의 <법구경>의 구절과 비교해보면 그 기운(氣韻)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길도 또한 불교이다. 범부가 붓다에 도달하려는 길임에는 불교는 오히려

필요한 길이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때 불교는 비로소 완성한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는 마침내 인간 존재의 종(縱)적 관계와 함께 횡(橫)적인 관계도 또한 관심 속에 넣었기 때문이며 또 출가의 비구와 함께 사회의 대중도 또한 같은 무게로서 이 길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승불교에 있어서 연각(緣覺) 및 성문(聲聞)의 길이 뒤떨어진 길인 것처럼 주장되어 온 것도 또한 당파적(黨派的)인 편협한 견해이며 결코 올바른 주장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종적인 관계를 받아들여 보충한 면이 이제 도리어 횡적인 관계를 버린다면 불교는 또다시 편파(偏頗)적인 것이 되고 만다. 보살의 이상을 첨가함으로써 완성한 불교는 성문·연각의 길을 버림으로써 또 다시 반신불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길로써 보살의 이상이 거기에 도달하려는 길이다. 그 어느 것도 결국은 개개의 인격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런데, 이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길로

려 풍요한 길이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때 불교는 비로소 완성한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는 마침내 인간 존재의 종(縱)적 관계와 함께 횡(橫)적인 관계도 또한 관심 속에 넣었기 때문이며 또 출가의 비구와 함께 사회의 대중도 또한 같은 무게로서 이 길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반면 지금까지 대승불교에 있어서 연각(緣覺) 및 성문(聲聞)의 길이 뒤떨어진 길인 것처럼 주장되어 온 것도 또한 당파적(黨派的)인 편협한 견해이며 결코 올바른 주장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종적인 관계를 받아들여 보충한 면이 이제 도리어 횡적인 관계를 버린다면 불교는 또다시 편파(偏頗)적인 것이 되고 만다. 보살의 이상을 첨가함으로써 완성한 불교는 성문·연각의 길을 버림으로써 또 다시 반신불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 스님의
一切唯心造

신앙은 사닥다리 오르듯

신앙은 사닥다리에 오르듯이 해야 한다. 사닥다리를 한 매듭씩 밟고 오르면, 오른 만큼 시야가 넓어져야 한다. 신앙인의 연륜(年輪)이 길어질수록 밟고 행동에서 향내 나는 일이 많아진다면 그는 스스로 구원을 완성한 자요, 자기를 바로 본 자일 것이다.

경찰청의 전신(前身)인 치안본부에서 경승실장이라는 소임을 맡아 6년 정도 머문 적이 있다. 그때 교통사고 처리를 지휘하는 담당경찰관들이 한결같이 내게 들려 준 말이 있다. 어느 종교에 속한 신앙인인 경우, 따지는 게 많아 상대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종교인도 사람이요, 무종교인도 사람이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선의 교통 관련 경찰관들이 느끼는 공통분모가, 어느 종교의 신앙인들을 상대하기 힘들고 무리들로 인식하고 있다면 작은 문제는 아닐 터이다. 따지기 좋아하고 인색하며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주장만을 일삼는다면 피곤한 사람으로 분류될 게 뻔한 일이다.

리 이웃거리 사닥다리 오르듯 하여 트인 안목으로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운명은 스스로 열어나가는 것

길거리를 가다보면 사주(四柱)나 관상(觀相), 또는 손금 본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에게 한 번쯤 관심은 가져봤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겠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일본인이 쓴 관상학에서 이런 구절을 만날 수 있다. 손금은 아무리 좋더라도 얼굴 잘생긴 것이 더욱 좋고(手相이不如), 얼굴이 잘 생겼다고 해도 마음 잘생긴 것이 좋고(觀相不如心相), 마음 바탕이 잘 타고 났더라도 마음을 쓰는 것이 더욱 좋은(心相不如用心) 것이다.

또한 부처님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여 모든 것이 마음 자체에 따라 이루어짐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개피, 소피, 말피, 따위의 신세타령은 접어들어야 한다.

사주(四柱)풀이를 즐기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일본 정도이다. 미국의 대통

신앙 깊을수록 말보다 행동 앞서야 운명은 개척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라며 북북종종 권리, 알아야할 권리, 보호받아야할 권리를 임버릇처럼 달고 산다면 그는 민주투사도 아니요, 민중의 대변인일 수 없을 것이다.

사닥다리에 오르듯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 양보의 미덕(美德)도 몸으로 보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일상의 생활도 그대로 생활화돼야 한다. 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종교인에게는 사랑하는 조국이 있는 법이다. 내 종교, 내 신앙이 존중되고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며 내 스스로 말과 행동에 역지가 없어야 한다. 일방통행식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부끼리도 종교가 다를 수 있고, 가족끼리도 신앙이 통일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긴 하나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같지 않다 하여, 이단시하거나 거리를 두며 벽을 쌓지 말 일이다. 대화를 하되 상대 신앙을 존중해 주는 대화의 기본 틀은 지켜져야 한다.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제발 당신과 나는 마음의 닫힌 빗장을 열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도록 하자. 하여 이 땅에 좋은 교본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민중적

령이 무슨 띠이고, 영국의 수상이 무슨 띠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최소한 그들 나라에서는 사주풀이 따위의 운명에 매달리지 않는다. 해마다 발행되는 사찰용 달력에 보면 삼재(三災)가 적혀 있는데 들삼재, 놀삼재, 날삼재라 하여 열두 띠별로 빼곡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거기다가 원진살이니, 상충살이니 하여 마치 무당들이 즐겨 읊는 낱부끄러운 문자들도 박혀있다. 이게 진리의 큰 스승 부처님을 모신 사찰의 달력인지, 무당협회에서 발행하는 무당 박수 전용 달력인지, 한심스러운 작태가 해마다 이어져가고 있다.

사람이 다니는 길과 사람이 모시는 신(神)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고 신의 이름도 신의 형상도 사람들이 짓고 만드는 것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신과의 만남, 신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니체의 결론은, 인간만한 신은 없다는 것이다. 나 또한 사람의 운명은 타고 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만들어 간다는 쪽이다. 사람은 움직이는 신(神) 그 자체니까.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문계좌 :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詩人 김하리 합장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 | | | | |
|----------------------|------------------------|------------------------|------------------------|
| CD01-제1, 서문(39:25) | 제8, 오색제자수기(21:11) | 제15, 종지용출품(21:13) | 제22, 속루품(04:36) |
| CD02-제2, 방편품(46:51) | CD06-제9, 수학우학인기(11:22) | 제16, 여래수랑품(21:15) | 제23, 약왕보살본사(23:10) |
| CD03-제3, 비유품(54:48) | 제10, 법사품(18:39) | 제17, 분별공덕품(23:31) | CD10-제24, 보살보살품(16:12) |
| CD04-제4, 신해품(30:24) | 제11, 건보달다(22:19) | 제18, 수화공덕품(13:23) | 제25, 관세음보살보살품(19:26) |
| 제5, 약초유품(16:08) | 제12, 재바달다(15:54) | CD09-제19, 반사공덕품(24:17) | 제26, 다라니품(10:07) |
| 제6, 수기품(17:13) | CD07-제13, 권지품(10:07) | 제20, 상왕왕본사(14:46) | 제27, 묘정왕본사(14:46) |
| CD05-제7, 화성유품(51:41) | 제14, 안력행품(27:27) | 제21, 여래신력품(08:59) |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언론사